

언어 영역

정답

1	①	2	⑤	3	①	4	④	5	③
6	①	7	②	8	⑤	9	④	10	③
11	④	12	②	13	①	14	④	15	②
16	②	17	③	18	③	19	②	20	③
21	③	22	⑤	23	③	24	④	25	①
26	⑤	27	①	28	③	29	②	30	⑤
31	④	32	①	33	⑤	34	④	35	①
36	④	37	②	38	③	39	②	40	①
41	③	42	②	43	③	44	⑤	45	⑤
46	⑤	47	①	48	⑤	49	①	50	②

듣기대본 및 해설

** 듣기 **

1. 이제 교양 강좌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골문자의 이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형상에서 파생된 글자들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들을 이해할 때는 신체의 형태와 위치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글자로 <자료 1>의 맨 왼쪽에 있는 ‘큰 대(大)’를 볼까요? 족장이나 왕이 두 팔과 두 다리를 벌리고 서있는 형상이죠? (사이) 이는 그 족장이나 왕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설 립(立)’입니다. 큰 대(大) 아래 부분에 땅을 나타내는 가로획을 하나 그어서 왕 앞에 서서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 다음은 ‘형 형(兄)’입니다. 앞의 두 글자와는 다르게 무릎을 꿇고 있고 머리를 크게 표현했네요. 아무래도 나이 어린 동생들보다는 형이 머리가 컸겠죠. 자, 그럼 나눠드린 <자료 2>를 보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하늘 천(天)’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겠습니까? (사이)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하늘을 한번 그려봅시다.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을 때 하늘은 네모 모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사람이 서 있는 형상 위에 네모난 하늘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입니다.

1. [출제의도] 문자 형성 원리 이해하기

사람이 서 있는 형상 위, 머리 부분에 하늘의 네모 형태를 올린 모양의 글자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 이번에는 수업의 한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남) : 선생님, 타고 다니는 bus를 ‘뽀스’라고 발음하면서 표기할 때는 ‘버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여) : 아, 그건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그렇단다.

학생(남) : 외래어 표기법이요?

선생님(여) : 그래, 외래어를 한국어로 적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야.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실제 언어 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우리말이 됐다고 봐야지.

학생(남) : 그럼, 선생님. 외래어가 이제 국어의 일부라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여) : 그렇지. 그래서 외래어를 외국어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표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학생(남) : 아, 그렇군요. 그럼 외래어를 우리 한글로 표기하는 데 꼭 지켜야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여) : 그래, 설명해줄 테니 잘 들어보렴. 우선 ‘남는 소리’는 적지 않는다는 게 있단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소리가 똑같다면 간편하게 적자는 거지. 예를 들어 발음이 같다면 굳이 복잡한 이중모음 대신 간편한 단모음을 쓰자는 거야.

학생(남) : 그럼, 선생님. 마시는 ‘juice’의 경우에 ‘ㅈ’아래에 이중모음 ‘ㅍ’이 아닌 단모음 ‘ㅌ’를 써야 하는군요.

선생님(여) : 그렇지. (사이) 둘째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단다. 아까 내가 말한 ‘bus’의 경우가 그래. 된소리인 ‘뽀’를 쓰지 않고 ‘ㅌ’를 쓰는 게 이 이유 때문이야.

학생(남) : 아, 그렇군요. 선생님. 이제 왜 ‘bus’를 ‘버스’라고 표기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선생님(여) : 셋째로, 중·장모음도 인정하지 않는단다. 설령 모음이 길게 소리가 나더라도 한글로 표기할 때는 줄여서 적어야 해. 배를 나타내는 ‘boat’의 경우 ‘보우트’라고 길게 발음하지만 표기할 때는 ‘보트’라고 짧게 표기해야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받침에 ‘ㄱ, ㄷ, ㅍ’을 쓰지 않는단다. ‘coffee shop’의 경우 ‘료’받침이 아닌 ‘ㄹ’받침을 써야 하는 거지.

학생(남) : 아 그렇군요. 선생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여) : 그래, 이상의 네 가지 규칙만 잘 지켜도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단다

2. [출제의도] 외래어 표기법 적용하기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①에, 받침에 ‘ㅍ’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②에, 이중모음 대신 단모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③에, 장음을 단음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④에 잘 드러나 있다. 외래어의 ‘f’를 한글로 적을 때 ‘ㅍ’으로 한다는 규정은 대화에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 이번에는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대구 수성구의 한 쌀 가게에 요술 쌀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껏 퍼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한 쌀단지였지요.

10년째 쌀장사를 하던 이 가게 주인은, 어느 날 신문 기사를 통해 한 어린이가 굶어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침 그 쌀 집은 영세민 임대 아파트 상가에 자리 잡았던 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사는 동네에도 그렇게 굶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는 쌀을 가득 담은 단지를 가게 모퉁이에 내

다 뒀어요. 그리고 단지엔 이렇게 써놓았죠.

(남) “다들 어려우시죠? 이 쌀로 뜨거운 밥 지어 드시고 힘내세요. 절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 혹시라도 사람들 이목 때문에 쌀을 가져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 그는 일부러 쌀단지를 가게 모퉁이에 내놓는 마음 씀씀이도 잊지 않았어요. 쌀단지를 내놓은 후 단지는 한 사발, 두 사발 비어갔죠. 그렇게 누군가 쌀을 퍼가면 쌀가게 주인은, 행여 가져가는 사람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얼른 쌀단지를 다시 채워놓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은 더 이상 쌀을 채워 넣지 않아도 됐어요. 쌀을 사러온 손님들이 구입한 쌀의 일부를 단지에 붓고 갔기 때문이죠. (사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인 입소문을 타고, 대구에 있는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요술 쌀단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쌀을 기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3. [출제의도] 이야기를 통해 교훈 이끌어내기

타인의 이목 때문에 쌀을 가져가지 못할 사람을 위해 쌀 단지를 가게 모퉁이 옆에 세워 두는 배려의 마음, 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그 사람들이 너나없이 동참하게끔 하는 공감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5. 이번에는 ‘칭찬’에 관한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1):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열풍 이후에 칭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칭찬의 방법에 대해 두 분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여2), 박(남):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여1): 네, 두 분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칭찬법은 무엇입니까?

김(여2): 네, 다 아시겠지만 칭찬이란 아이가 이루어 낸 좋은 성과나 결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결과 칭찬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높은 성취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일의 효율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자(여1):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 네, 물론, 칭찬은 그 순간 일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즉,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데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에 치중한 칭찬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아이가 그 결과에 대해 어머니께 칭찬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아이는 다음에도 100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의무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지만 다음 시험에서 또 100점을 받기 위해 무리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 치중한 칭찬은 좋은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자(여1): 김 교수님, 박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여2): 글썩요. (사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 100점을 받은 아이가 결과에 대해 어머니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면 학교 수업과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결과를 칭찬하던 과정을 칭찬하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남): 그렇지만 결과 중심으로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은 곧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칭찬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닐까요?

사회자(여1): 네, 두 분은 칭찬의 방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칭찬의 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견을 정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김(여2):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칭찬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특히 노력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100점을 받다니 대단한 걸”과 같은 칭찬의 말을 많이 해 주세요.

박(남):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수학 점수가 향상된 아이에게 “수학 과목의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구나.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니?”와 같이 자신이 노력한 과정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럼 그 아이는 노력한 과정과 자신의 태도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사회자(여1):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칭찬의 방법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다소 달랐지만, 칭찬을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두 분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출제의도] 근거 제시 방법 파악하기

남자 교수는 칭찬이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며 칭찬의 과정적 측면을 제시했을 뿐 권위자의 말을 인용한 근거 제시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5. [출제의도] 의견의 공통점 파악하기

여자 교수의 ‘칭찬이 일의 효율을 높인다.’는 의견에 남자 교수도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쓰기 ****

6. [출제의도] 연상하기

자신의 역량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지 않는 것은 투명성과 진정성의 문제이므로, 닫힌 곳을 여는 열쇠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자기 전에 바른다.’에서 사용 방법이, ‘새살이 돋는다.’에서 효능이 드러나며, ‘비단결 같은’에서는 비유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요’, ‘-예요’ 등의 어미를 통해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8. [출제의도] 개요 수정·보완하기

결론은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을 ‘수학여행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면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기 어

렵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하기

(나)-1은 도시철도 이용의 불편함을, (다)-1은 연도별 도시철도 손실액이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재정 악화의 원인이 이용객의 불편 건수의 증가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조성(造成)하다’는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다.’는 뜻이고, ‘조장(助長)하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다.’는 뜻이다. 목적어인 ‘불신율’에 호응되는 서술어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방향에 쓸 수 있는 ‘조장(助長)하다’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1. [출제의도]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

ㄹ의 ‘-을’은 미래 시제와 의지를 나타낼 뿐 추측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2. [출제의도] 다의어의 의미 파악하기

①의 ‘걸린’은 ‘걸다④’, ③의 ‘걸렸’은 ‘걸다①’, ④의 ‘걸린’은 ‘걸다⑤’, ⑤의 ‘걸리기’는 ‘걸다③’의 피동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현대시 ****

□ 작품: (가) 김영랑, 제야
(나) 서정주, 신부
(다) 오세영, 10월

13.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서는 제야를 맞아 기원을 하는 여인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냈고, (나)에서는 버림받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한이 심화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다)에서는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인생의 의미가 감각적 이미지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4.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제4연 1행에서 흰 그릇에 담긴 여인의 마음은 소망을 담은 것이다.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천지신명에 대해 감사와 새해를 맞는 기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5. [출제의도] 표현 특징 파악하기

[A]부분의 제1연의 1행과 제2연 1행은 평서형 종결어미를 사용했고, 제1연의 2행과 제2연의 2행은 의문·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해 운율미를 드러냈다 [B]에는 역설법, 의인법 등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6.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참고하여 감상하기

‘신부방’ 안은 영문도 모른 채 버림받은 신부의 한이 심화되는 공간이고, 밝은 신부에 대해 오해하고 달아난 신랑이 머무르는 공간이다. 신랑이 신중하지 못해 달아난 밖의 공간을 위선의 공간으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7. [출제의도] 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꽃잎’을 통해 계절적 이미지는 파악할 수 있으나 ‘분분히 지던’과 ‘얼마나 슬펐던가’로 볼 때 희망을 품고 의지를 다짐하는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예술 ****

□ 출전: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18. [출제의도] 제목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 글은 철학자 하르트만의 증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예술작품의 감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9. [출제의도] 관점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A]에서 후경의 제1층은 묘사된 인물의 외면적·물적 계층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②는 인물의

표정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후경의 제2층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4문단에서 예술가는 자신의 정신 세계를 담은 후경을 전경으로 형상화하고, 감상자는 전경을 통해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한 후경을 알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 후경, ㉡이 전경이다. 그리고 2·3문단을 보면 전경이 하나의 층이고, 후경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1.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5문단에서 예술 작품의 감상은 감상자가 예술 작품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정신을 살찌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과학 ****

□ 출전: 강정환, <알레로파시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

2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말벌의 힘을 이용해 천적을 퇴치하는 것이 ①, 소나무의 ‘갈로탄닌’이 ②, 잔디와 클로버가 ③, 병원균에 대한 식물의 방어 과정이 ④에 각각 드러나 있다. 이 알레로파시는 식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동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3.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알레로파시의 실험 방법과 알레로파시를 보이는 식물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알레로파시가 일어나는 과정은 2, 3, 4, 5문단에 드러나며 알레로파시가 일어나는 목적은 1문단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4. [출제의도] 주어진 현상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타감물질을 음식물이나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이 ①, ③, ⑤에, 산초나무 열매나 방아풀에 있는 캡사이신이 타감물질이라는 것이 ②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갈래 복합 ****

□ 작품: (가) 김육, 관사유감
(나) 이원익, 고공담주인가
(다) 윤동주, 별뿔 떨어진 데

2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는 ‘-는가’의 의문형 진술 사용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한탄하고 있으며, (나)도 ‘-할까’, ‘-런가’ 등의 의문형 진술을 사용하여 세태를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6.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오늘날의 아픈 현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은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7. [출제의도]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세태가 어지러워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있다. (나)의 화자 역시 의논할 상대도 없이 혼자 근심하고 있는 ‘상진’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8. [출제의도] 구절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나무’는 ‘행동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편안하고 손쉽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무의 마음이 옳아오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다짐을 하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사회 ****

□ 출전: 정남구, <한국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29. [출제의도] 세부 정보의 내용 이해하기

2문단에서 어제의 증가와 오늘의 현재가의 차이의 값이 '전일비'이며, 이 전일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등락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제의 증가와 오늘의 현재가의 차이가 크면 등락률은 크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전자'의 시가총액은 기업의 총 주식수(상장 주식수)인 100에 현재가인 50,000을 곱한 500만원이 된다는 것을 3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1. [출제의도] 관련 사례의 적절성 파악하기

①은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최근 5년간의 취업률은 대학의 과거 실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 유사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인문 ****

□ 출전: 아리스토텔레스, <우에>

32. [출제의도] 집필 의도 파악하기

이 글은 이득, 쾌락, 선의 등, 우애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완전한 우애의 의미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3. [출제의도] 비판의 적절성 파악하기

2문단에서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유머가 유쾌하기 때문이며, 유쾌함을 좋아하는 것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의 성품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여유롭고 긍정적인 성품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①, ②, ③, ④의 내용은 이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A국과 B국의 관계는 동등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A국의 선의가 B국에 수용되기 위해서 지원의 정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5. [출제의도] 접사의 쓰임 파악하기

'되다'는 어근과 결합해 동사와 형용사로 파생시킨다. ㉠의 경우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이다. '영광되다'의 경우 명사 '영광'에 '되다'가 붙어 형용사가 된 예로 ㉠의 경우와 동일하다. ②, ③, ④, ⑤는 모두 피동을 뜻하는 동사로 쓰인 경우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현대소설 ****

□ 작품: 김원일, <마당깊은 집>

36.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이해하기

'큼디', '묵을 수 있으니까' 등과 같은 구절을 통해 특정 지역의 방언이 잘 드러나 있으며, 서술자의 서술이 전반적으로 구어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7. [출제의도] 서사의 구조 이해하기

'길수가 길레를 빨아먹는 행동'의 원인을 추측함에 있어 '어머니'와 '나'의 견해는 차이가 있으나, 그 견해 차가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8.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이해하기

'쪽마루'에 있는 사람들이 '대청 마루'의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동경과 질시의 표현일 뿐, 인간성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9. [출제의도] 영상 표현의 방법 및 의도 파악하기

⑥는 '경기택'이 '나'를 비꼬는 말이다. 그러므로 '경기택'의 자기 비하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감독의 의도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기술 ****

□ 출전: 이재인,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40. [출제의도] 설명 방법 파악하기

3, 4문단에서는 '바람탑'과 '천연냉장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2문단에서는 '블루 이코노미'의 개념을 정의하여 대상의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1. [출제의도] 관련 사례의 적절성 파악하기

'블루 이코노미'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하거나 그와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능동적으로 자연 생태계의 순환 시스템을 모방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①은 단순한 친환경적인 소재의 사용 ②, ④, ⑤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 개발의 예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4문단에서 공기의 흐름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였고 지면의 공기가 지하 수로에 연결된 통로로 유입되는 이유는 '온도차'가 아니라 '압력차'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3.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의 '주다'는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의 의미이다. ①은 '속력이나 힘을 가하다.', ②는 '물건을 남에게 건네다.', ④는 '다른 사람에게 정을 베풀거나 터놓다.', ⑤는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고전소설 ****

□ 작품: 김시습, <취유부벽정기>

44.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이해하기

지문에서 '여인'은 성씨와 보계를 묻는 홍생의 질문에 자신의 과거 내력을 요약하여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5. [출제의도] 시어의 상징적 의미 이해하기

'옛 성터'는 과거의 영화로운 시절을 잃어버린 후에 느끼는 무상감이 드러나는 배경으로, 여인의 시에서는 '높은 무덤'의 의미와 동일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6. [출제의도] 견해에 따른 작품 해석하기

[견해2]로 볼 때, 여인이 선계에서 부벽정을 찾아 온 것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작가의 현실 초월 욕구는 [견해1]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7.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찾기

①천우신조(天佑神助):하늘과 신령의 도움, ②금과옥조(金科玉條):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정, ③학수고대(鶴首苦待):몹시 애타게 기다림, ④흥진비래(興盡悲來):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이 돌고 돌아 순환됨을 가리키는 말, ⑤간담상조(肝膽相照):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사귀.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언어 ****

□ 출전: 이관규, <국어의 부정 표현>

48.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상태 부정과 의지 부정은 주어의 능력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 부정은 어떤 상태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며, 의지 부정은 주어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하기

'어제 도서관에서는'은 보조사 '는'을 덧붙여 중의성을 해소(장소인 도서관을 부정)하였고, '미덥지 않았나 봐'는 형용사 '미덥다'를 서술어로 쓴 문장으로, 미더운 상태를 부정한 것이다. '못 믿는 걸까'의 경우는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은 맞다고 할 수 있으나 긴 부정문이 아니

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50.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⑥는 부정 표현이지만 실제로 부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한 의문 형식이지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